

국정뉴스



트럼프 미 대통령 25년 만에 국민 방한

양국 정상 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

트럼프 미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11월 7일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국민 방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이 동북아 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확인하고, 양국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미국 대통령으로는 24년 만에 국회를 방문, 연설을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폭군', '독재자'로 규정하고 김정은 체제를 '지옥'에까지 비유한 뒤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총체적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했다.

美 항모 3척 동원 한미연합 훈련

북핵 대응 미 전략자산 한반도 순환배치 일환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이 11월 12~14일 동해상의 한국작전구역(KTO)에 진입, 우리 해군과 고강도 연합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한미 양국이 10월 28일 한미안보협의(SCM)에 이어 11월 7일 정상회담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강화하기로 한 이후 가진 첫 대규모 연합훈련이다.

훈련에는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함과 류성룡함 등 이지스구축함 2척을 포함한 7척이 참가했으며, 미 해군은 로널드 레이건호(CVN 76), 시어도어 루스벨트호(CVN 71), 니미츠호(CVN 68) 등 항모 3척을 포함해 총 11척이 참가했다.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 신남방정책 첫 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 다자외교 펼쳐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8일 취임 후 처음으로 동남아 순방에 나섰다. 10일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및 사드 등 안보현안과 경제협력을 논의했다. 11~12일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한 데 이어 13일 필리핀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연달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연설을 통해 미·일·중·러 4강 중심의 외교지평을 넓혀 동남아를 5번째 중요한 외교적 거점으로 삼겠다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



화제의 현장

대전지부 '구대전형무소 망루' 2017 대전 기네스에 선정

근대 역사의 잊혀진 상처, 근현대유산 기네스에 올라

대전시지부의 자유회관 건물 우측에 세워진 '구대전형무소 망루'가 11월 13일 대전평생교육원에서 열린 대전광역시 주최 '시민공감 대전기네스 어워드'에서 2017 대전 기네스에 선정됐다.

대전 기네스는 대전광역시가 대전에 숨은 매력과 도시브랜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시민공모전을 통해 자연생태, 전통문화, 근현대유산, 생활문화, 관광문화, 과학, 달인·기인 등 건축물과 인물을 중심으로 5개 테마에 86개 곳(인물)을 선정한 것이다.

근현대유산에 선정된 '구대전형무소 망루'는 대전시 중구 중촌동 1번지 대전

자유회관 앞 1동(건축면적 30.5㎡)으로 일제 강점기인 1939년 대전형무소(현 대전교도소) 확장당시 형무소 담장 남쪽 모서리에 세워졌던 건축물이다.

이곳은 대전형무소 옛터로 1919년 3·1 운동 이후 수감자가 늘어나자 대전 감옥을 1938년에 확장한 것인데 독립투사들을 수감하기 위해 일본이 소규모로 설치했던 형무소다. 한때는 안창호, 여운형, 박헌영, 이응로 등 많은 사람들이 수감되었고, 6·25전쟁 때는 연합군에 쫓기던 북한군이 수천 명의 양민을 무참하게 학살한 곳이기도 하다.

이곳을 철거할 당시 역사의 상처를 교

훈삼기 위하여 하나의 망루는 남겨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에 따라 보존, 연맹이 관리해오고 있었으며 2001년 6월에는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47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연맹 대전시지부는 반공 애국지사과 양민들이 학살됐던 현장을 보존하고 역사적 교훈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 대전형무소 옛터에 1986년 대전자유회관을 건립해 관리해오고 있으며, 수많은 양민들을 수몰 학살한 우물 주변에 '애국지사 추모탑'을 세우고 매년 10월 30일을 전후해 '자유수호 애국지사 합동위령제'를 거행해오고 있다.

